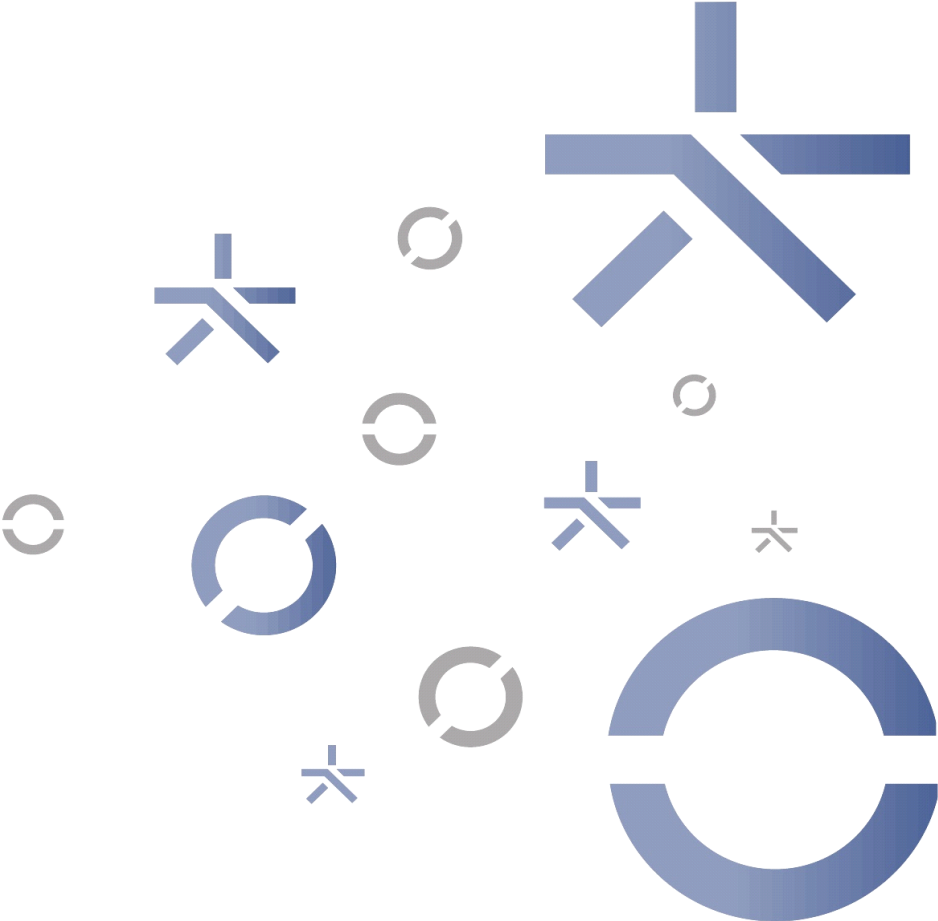


도시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및 관리방안

권전오·백승아



연구책임

권전오

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

032-260-2661

ecology21@ii.re.kr

열람방법

인천광역시 행정자료실

인천연구원 자료실, 홈페이지(www.ii.re.kr)

1. 연구배경 및 목적

- 평균 수명 상승과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과거보다 더 증가하면서 도시공원 내 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. 특히, 최근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음.
- 본 연구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원 시설로서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
2. 맨발걷기의 장점과 단점

- 맨발걷기 운동본부의 박동창은 접지효과, 지압효과, 스프링효과, 혈액펌핑효과, 발가락활성화 효과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.
- 그 외 다수의 연구자들과 언론에서는 혈액순환 개선, 체온 상승을 통한 심혈관 질환 예방, 허리 통증 완화, 운동기능 향상, 수면 만족도 개선, 다이어트 효과, 집중력 향상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.
- 파상풍을 비롯해 세균 등 감염병 가능성과 겨울철 동상에 유의해야 하며 당뇨병 환자는 주의해야 함. 습진, 무좀이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.

3. 조례 제정 및 인천광역시 맨발산책로 조성 현황

- 2024년 7월 현재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148개의 조례가 제정되었음. 인천시는 2023년 7월 14일에 인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.
- 인천시 관내에는 총 54개소(21,761m)가 2024년 말까지 조성될 예정임. 이중 황토길은 10개소이며, 황토와 마사토를 혼합한 곳이 11개소임.

4. 맨발산책로 조성단계의 개선방안

(1) 맨발산책로의 기본구조

- 길이: 현장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길게 조성하면 지루하지 않음.
- 폭: 2명 교행 시 1.5m 이상, 3명 교행 시 2.1m 이상, 혼잡한 구간은 충분한 폭 확보
- 형태: 왕복형(직선형) 또는 순환형이 있으며 순환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.
- 단면: 하부에 부직포, 합성고무, 시멘트, 아스팔트, 자갈 등 부도체 깔지 않음.
- 경사: 흙 유실을 고려하여 가급적 평지나 완경사지에 조성

(2) 길 조성

- 마사토길: 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듦으로 맨발산책로의 기본으로 설정
- 모래길: 맨발걷기 초보자용으로 많이 이용됨.
- 황톳길
 - (길이) 100m 전후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
 - (두께) 20cm 전후
 - (수원) 질퍽한 황톳길(습식)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수원 설치
 - (안전) 황톳길을 따라 좌우 측 모두에 안전손잡이 설치
 - (풍수해대비) 방수포 설치, 현장 관리인력을 사전 준비

(3) 보완시설

- 황토 진흙탕
 - 황톳길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황토 진흙탕으로 대체
 - 직경 6m 전후로 넓게 하고 형태는 사각형보다는 원형 또는 육각형이 편리함.
 - 가까운 곳에 수원을 설치하고 안전손잡이, 그늘막 등 설계에 반영

- 세족장
 - 주변으로 물이 퍼지지 않는 배수 구배로 깊이 않게 설계
 - 쌓인 흙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맨홀 설치
 - 수도꼭지 높이는 물이 주변으로 튀지 않게 길게 설치
 - 동절기 운영 여부 사전 검토
- 에어컨: 소음 민원 가능성 사전 검토
- 그늘막, 공원의자 등 편의시설 고려
- 사계절 비닐하우스
 - 장점: 동절기 이용, 토양 유실 억제, 습도 유지 용이, 이물질 유입 차단
 - 단점: 경관 문제 야기, 감기 등 전염병 발생 우려
- 관리용 시설(창고): 황토 등 자재 보관, 청소 및 관리용품 보관, 인부 쉼터

(4) 필요 시설 4단계 분류(인식조사 결과)

- 최소 시설
 - 기존 산책로 기반 정비, 마사토길, 장의자, 나무그늘, 신발장, 야외 세족장, 청소도구함(7개)
- 기본 시설
 - 황톳길(직선), 황톳길(순환형), 황토 진흙탕, 안전손잡이(황톳길), 그늘막구조(지붕), 에어컨, 물분사 시설(호수, 분사기), 자재 보관용 창고(8개)
- 양호한 여건
 - 모래길, 모래 체험장, 황토볼장, 조약돌볼장, 지압보도(조약돌 등), 족욕장, 정자, 야간 조명, 사계절 세족장, 직원 휴게시설(10개)
- 최상의 여건
 - 흔들의자, 동절기용 비닐하우스, 비닐하우스 내 스프링클러, 동절기용 온풍기(4개)

(5) 조성단계의 갈등 관리

- 기존 공원산책로 이용자와 맨발산책로 이용자의 갈등 대비
-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이용자와 맨발산책로 이용자의 갈등 대비

[요약 표 1] 필요 시설에 대한 실무자와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

단계	걷기길	걷기길 보완시설	휴식시설	편의시설	관리시설
I. 최소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 산책로 지반 정비 • 마사토길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의자 • 나무그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발장 • 야외 세족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소도구함
II. 기본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황톳길 (직선) • 황톳길 (순환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황토 진흙탕 • 안전손잡이 (황톳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그늘막 구조 (지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에어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물분사 시설 (호수, 분사기) • 자재보관용 창고
III. 양호한 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래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래 체험장 • 황토볼장 • 조약돌볼장 • 지압보도 (조약돌 등) • 족욕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야간 조명 • 사계절 세족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원 휴게시설
IV. 최상의 여건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흔들의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절기용 비닐하우스 • 비닐하우스 내 스프링쿨러 • 동절기용 온풍기 	

(6) 안내판 설치

- 맨발걷기의 효과나 황토의 효능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음.
- 공공에서는 이용상 주의사항, 금지사항, 이용안내 중심으로 안내판 설치 필요

5. 맨발산책로 관리단계의 개선방안

(1) 황톳길과 마사토길 관리

- 토양 경화문제 해소
 -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비가 온 이후 밟으면 다져짐.
 -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토양을 부드럽게 함.

- 팽이 등 도구 활용
- 비가 온 후 유실된 토양을 주기적으로 복구
- 쓰레기 등 주기적인 청소
- 홍수와 태풍 대비: 비가 오면 미세 입자(특히, 황토)가 유실됨.
 - 비닐과 방수포로 덮고 모래주머니로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함.
 - 현장 관리 인력 필요

(2) 걷기길 보완시설 관리

- 황토 진흙탕과 모래 체험장: 물을 주기적으로 뿌림
- 세족장: 동절기 이용 중단 여부 사전 공지

(3) 유지관리

- 지속적인 청소 및 정비 인력 투입
- 관리 인력과 예산 확보
- 안전관리

6. 기타 정책제언

-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‘맨발산책로’를 기준 용어로 사용
- 학교, 공공기관, 아파트 단지 등에 맨발산책로 조성시 지원 방안 마련
- 구군별 1 명품 맨발산책로 만들기
- 시민대상 교육과 자원봉사체계 운영
-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맨발걷기 지원을 위한 종합 정비계획 수립

이 보고서는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.
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(www.ii.re.kr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